

특 집 : 한국보건정책의 현재와 미래

건강한 학교 만들기

김 성 이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얼마 전 「청소년보호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공모를 위원회 홈페이지와 하이텔 등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신망에 게재했다. 이번 공모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본계획에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코자 마련된 것이었다. 수렴된 여러 의견들 중에는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금지하고 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왜 그것이 나쁜지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여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등 많은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공모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의견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깊은 불신과 기성세대에 대한 커다란 불만이 담겨져 있었다. 발상의 전환, 창조적 사고 등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론 60년대 사고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옥아매고 있는 교육정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를 심지어 청소년 사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 차라리 어른들을 없애자', '청소년보호법, 웃기고 있네' 등의 원색적인 언어들로 표현된 이들의 의견은 기성세대와 청소년 사이의 골 깊은 시각의 차이를 엿보게 하였다.

학교와 정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을 만들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규제들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격한 생각의 차이는 상호간의 갈등을 가져오고 세대간의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바로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건전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역할은 사회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 이 보건학회가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학교보건학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기성세대의 의식과 청소년 의식 사이의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세대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가정이, 학교가 나아가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는 청소년금연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청소년흡연은 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침과 동시에 그 규모가 점차 커진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5월 31일을 '금연의 날'로 선포하여 1백 66개 회원국들이 이 날만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권장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8년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창립되어 각급 학교의 금연교실 운영 등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하게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흡연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미치는 간접흡연피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성인 남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증가하

고 있다. 1990년 '세계 금연의 날'의 주제로 「청소년과 어린이를 담배로부터 구하자」로 정하여 청소년 흡연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흡연이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대두되자 1998년 「담배 연기 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을 세계 금연의 날 슬로건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인구는 최근 10여년 간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생집단의 35.4%가 흡연의 경험을 갖고 있고, 이 중 습관적으로 피운다고 응답한 학생이 8.1%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초 음주 및 흡연에 노출되는 시기는 대부분 중학교 3학년 이전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권유에 의해 경험하거나 호기심에 피워보는 경우가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흡연의 주된 장소는 공원이나 야산(21.4%), 자신의 집(16.1%) 또는 기타의 장소(32.9%)로 응답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흡연의 경험 수치는 미국학생의 18%, 일본 학생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흡연이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미국 국립 암 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담배로 인한 암 발생율의 위험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피웠는가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 중요하고, 어려서 담배를 피우면 폐의 완전한 발육에 지장을 주어 후에 폐 질환을 일으킨다. 또 니코틴 중독에 더 심하게 걸려 끊기가 힘들 뿐 아니라 폐의 실질 조직의 유전인자가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청소년의 세포, 조직 그리고 장기는 성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배의 독성물질 또는 화학 물질에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지고,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피해는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유전학 교수인 위엔키(John K. Wienke) 박사도 "18세 이하가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므로 비록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은 그대로 지속된다."고 그의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은 흡연이 청소년의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청소년 흡연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청소년 흡연은 사회규범의 첫 일탈행위로서 다음 단계의 청소년 비행과 연결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부모와 선생님으로 대변되는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의 몸짓으로 시작되는 흡연은 청소년기의 불안한 심리와 또래 집단 내의 집단적 충동과 결합하여 또 다른 비행을 유발시킨다. 얼마 전 대구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으려던 할머니가 폭행을 당한 사건도 비근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년비행범의 경우 대부분 공범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보통 담배를 함께 피던 친구들이었다는 점에서 흡연과 청소년 비행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방-치료-유지 모델(Prevention-Treatment-Maintenance Model)을 들 수 있다.

예방-치료-재활 모델에서 청소년 문제의 예방은 일반적(Universal), 선택적(Selective), 집중적(Indicated)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예방이란 일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적 개입이 문제를 전혀 가지지 않은 청소년 모두가 포함된다. 일반적 예방모델은 청소년 흡연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개입이다. 청소년 모두에게 흡연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이런 예방적 모델은 개개인에 드는 비용은 적고, 일반대중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개입자체가 위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예방적 모델은 선택적 예방으로 문제에 빠져들 수 있는 집단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부정적인 영향도 적다. 이 모델 적용의 예는 저소득층의 청소년이나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교육이다. 세 번째 집중적 모델은 문제에 빠져들기 바로 직전의 청소년이나 빠져들었다 해도 그 정도가 매우 가벼워 아직 충분한 회복가능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예방모델은 전반적으로 문제사례의

발생을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줄일 수는 있으나 그 효과성이나 결과가 곧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청소년들이 문제에 빠지더라도 발생연령 및 시기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조기증상의 장기화를 막고 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료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례발견과 알려진 사례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포함한다. 치료 모델은 문제영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리치료, 약물치료, 지지집단,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이 치료모델에서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의 정도 내지는 기간을 줄이고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며 문제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복합적 문제를 줄이는데 초점을 둔다.

유지모델에서는 장기치료 내지는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 내지는 보호의 목적에 맞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을 포함한 후속적 조치를 포함한다. 치료 및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의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 치료를 받도록 하며, 재활을 포함한 후속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치료-재활 모델을 실제 청소년 흡연 문제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들이 도출된다.

예방적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실시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로 미국의 TNT(Toward No Tobacco)라는 10주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흡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을 조기에 발견하며 동시에 학교 내 흡연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적 측면에서는 단순 및 호기심으로 인한 단기 흡연자의 단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고 상습적인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교실과 같은 집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지적 측면에서는 장기치료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흡연자를 위한 치료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 금연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계·관계·언론계·시민단체 모두의 참여

하에 청소년 금연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금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이 추진위원회는 청소년 금연 관련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단위로서 청소년 금연에 대한 사회 각계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전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전국적인 홍보와 여론확산을 위해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청소년 금연 토론회」를 개최하고 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시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금연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들이 솔선하여 금연함으로써 청소년 금연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성인 금연 선포식」을 열고, 부모와 함께 하는 금연교실도 운영할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보다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장의 관심 아래 금연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전국 학교 중 100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청소년 금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원할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존경받는 노인들을 조직하여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행위 등을 감시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를 기점으로 금연 클리닉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청소년 금연운동에 있어서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예방-치료-유지 모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 흡연문제는 치료의 차원과 함께 예방이 병행되어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금연학교를 운영하며 청소년 흡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과 그에 따르는 비행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학교 전체의 중점추진과제로 부각시키기에 주저하는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에서는 금연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흡연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으며, 실제 전체 보건교육시간 중 1시간도 금연교육에 할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은 현실적으로 수행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교육효과도 아주 높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금연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청소년 금연운동의 동반자로 만드는 데에도 학교는 큰 힘을 보유하고 있다.

이 노력의 선두에는 학교장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적이다. 단지 학내 일탈행위 규제로써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청소년 건강향상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금연교육의 전문적 수행자로서 각 학교의 양호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과정별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양호교사들의 현실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과 지적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가능케 할 것이며,

실제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금연교육에 이끌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도 양호교사들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급 학교의 선생님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고 계신 한국학교보건학회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회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